

# 대학도서관 사서의 미래전략

- 발전하는 사서를 중심으로 -

김 춘 식

(충북대학교 도서관 사서)

## < 목 차 >

1. 서론
2. 본론
  - 2-1. 대학도서관과 사서
  - 2-2. 환경요인에 따른 도서관 업무의 변화
  - 2-3. 사회적 역할 확대
  - 2-4. 사서직의 미래 전략
3. 결론

## I. 서 론

대학이란 인류가 필요로 하는 지식을 습득하고 연구하는 최고 학문기관이다. 즉 교육을 통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격자들을 길러내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에서 교육이나 학문연구의 토대가 되어야 하는 대학도서관 역할의 중요성은 누구나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다. 대학도서관이 교육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대학 교육 및 국가의 인적자원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한마디로 말해 대학의 심장부인 셈이다.

사서(司書, Librarian)는 도서, 도서관 만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사회변화와 요구에 따라 변모를 거듭해 왔다.

그동안 사서직의 발전에 관한 많은 선행 연구가 있었으나 사서직에 대한 전반적이 이해와 사회 역사적 이해 및 해석이 결여되어 마치 나무는 많으나 그 나무가 위치한 숲이 없는 듯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보를 수집, 정리, 보관하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용시키는 정도로만 이 사회속에서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책만 가져다 놓으면 도서관은 원활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서고지기(custodian of books) 정도로만 생각되어 지고 있는 것이다.

문헌의 수집, 정리, 보존 등과 같은 조직 내부적인 속성을 띠고 있는 역할에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 Inter-Net과 Digital Library가 현실화 되고 있는 지금의 환경에서는 탐색전문가, 정보중재자, 주제전문가, 교육전문가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즉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하는 전자매체자료의 출현과 대학의 환경변화 및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전문직 사서들의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다.

전문직이 일반직과 구별되는 점을 살펴보면 ①사회의 공익과 발전을 위한 봉사직임으로 사회적 인식이 높으며, ②직업활동을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특수 기술을 필요로 함으로 대학의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다른직업보다 오랜 연한의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며, ③전문지식과 이론, 기술 및 훈련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습, 오랜 경험, 끊임없는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④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전문직 단체를 조직, 공동관심사를 논하고, 전문지를 내고, 그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도서관 사서직을 타직종으로

부터 전문직으로 인정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발 맞추어 유능한 전문직 사서의 확보 없이는 도서관의 원활한 기능을 기대할 수 없으며, 도서관의 원활한 기능 없이는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한 대학의 발전도 없고, 나아가 사회의, 국가의 발전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을 각 대학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이해와 제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이처럼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도서관 사서의 발전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발전해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정체되어 있는 도서관이 아닌, 정체되어 있는 사서가 아닌 사서의 역량에 관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사서의 모습이 필요하다.

## II. 본 론

### 2.1. 대학도서관과 사서

21C의 사서는 21C 변화의 도서관을 이끌어 가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21C의 사서는 기술발달로 인한 21C의 도서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스스로의 내외적 역량의 필요충분 조건을 어떻게 한계 지우고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는 더 이상 도서관이 책을 보관하고 빌려주기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사회는 물론 대학의 구성원들은 인식하고 있는 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고 유동하는 종합정보센터의 개념인 도서관으로 태동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도서관이 종합정보센터로서의 활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발돋움 하려면 시스템의 전산화 및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위한 다양하고 최신의 멀티미디어 시설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 학문의 세계에서 정보의 위치 탐색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자들의 만족을 얻어내기 힘들다. 전문직 사서로서 이용자들의 요구 변화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이다. 즉 사서는 이용자와 그 이용자의 지적요구와 관련해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되면서 개인

과 사회에 있어서의 인식과정을 이해하고, 그 이해가 봉사로 이행되어질 때 사서의 사회적 책무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습득되는 기술적 지식은 물론 창조성이 바탕이 된 인문학적 소양을 넓혀 가는 노력을 통해 이용자들의 구미를 잘 파악하여 서비스해야 하고 이용자들의 정보검색 수준을 향상시켜주는 교육까지도 사서들의 역할인 것이다.

## 2.2. 환경요인에 따른 도서관 업무의 변화

대학도서관은 직원수, 장서수, 연속간행물 구독종수, 자료구입비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운영 현황을 분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다음의 <표>에서와 같이 국·공립대학도서관 60개관, 사립대학도서관 198개관, 전문대학도서관 157개관, 각종학교 도서관 20개관으로 모두 435개관의 대학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 표에서 소장 장서 수는 국내서, 국외서, 고서를 함께 집계한 것이며, 연속간행물 종수는 국내 및 국외 인쇄매체의 학술지만을 더한 수치이다.

<표>대학도서관의 연도별 주요 지표 변화 추이

구분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도서관수(관)	416	420	436	438	435
직원수(명)	3,802	3,925	3,866	3,814	3,831
장서수(권)	68,665,087	75,837,882	81,612,498	86,152,907	90,099,891
연속간행물수(종)	349,509	369,546	486,766	386,283	359,816
이용자수(명)	56,845,599	60,525,449	62,649,284	67,504,544	67,866,690
대출책수(권)	110,528,109	106,986,736	88,108,530	69,883,517	32,801,051
자료구입비(천원)	122,793,538	131,116,024	137,162,228	151,536,249	157,492,317

<출전> 한국도서관통계 2000, 2001, 2002, 2003 및 2004 한국도서관연감.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최근 5년 동안 국내 대학도서관의 연속간행물(인쇄형) 구

입 종수와 대출책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대학도서관의 연속간행물 구입 종수의 급감 원인은 해외 연속간행물 가격의 급등과 자료구입예산의 완만한 상승 및 동결을 들 수 있겠다. 그리고 최근 대학도서관의 대출책수가 현격히 감소한 것은 대학마다 경쟁적으로 추진한 디지털도서관의 운영, 도서관 직원 수의 감소, 도서관 서고의 개가제 전환, 도서관자료로서 전자출판물의 증가 등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도서관들이 힘들어하고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시설, 예산, 직원의 부족 등 도서관 환경적 요인이 이유임을 알 수 있다.

### 2.2.1 도서관 환경요인 : 시설

시설적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도서관은 향후 15년간 장서를 소장할 수 있는 Space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향후 5년정도의 장서를 소장할 수 있는 Space를 보유하고 있는 정도이거나 포화상태에 이른 대학 도서관들이 대부분인 실정이다.

일부의 발빠른 도서관들은 학교당국의 적극적인 예산 뒷받침을 받아 새롭게 도서관을 건립하거나 증축하고들 있다. 이것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도서관 사서직의 부단한 노력과 더불어 학교당국에서 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산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들만이 이루어낸 결실인 것이다.

### 2.2.2 도서관 환경요인 : 예산

과거에 비해 장서량보다 더 큰 도서관의 평가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국내/외 학술 Data-Base와 전자저널 등은 도서관의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외 학술 Data-Base와 전자저널의 가격은 매년 상승하는 반면 도서관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매년 같은 전공분야의 DB와 전자저널을 구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단행본, 학술잡지, Web-DB, 전자저널의 구입 등과 같이 자료구입 예산만이 아닌 도서관 전반적인 운영비와 이에 필요한 업무보조비 등의 예산지원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 2.2.3 도서관 환경요인 : 직원 수 부족

지난 IMF를 전후하여 대폭 삭감된 직원의 수는 전국의 대학도서관 운영에 어

려움을 주고 있다. 제공해야 할 서비스 분야와 장서량은 늘어가는 반면 상대적으로 직원 수는 줄어들고 있으니 더 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매진해야 하는 시점에서 현상 유지만으로도 어렵다. 즉, 이용자들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와 나날이 변해가는 정보매체의 변화 등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힘든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전통적이며 사서직 본연의 업무인 분류, Original Cataloging, 전거통제, 상호대차, 장서개발, 참고봉사 등의 업무까지 보조원에게 담당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직원의 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정보의 변화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도서관과 사서는 업무의 변화를 꾀하는 등 새로운 방법을 통해 효율성을 시도하고 있다.

#### ① 수서업무

도서 구입의 방법으로 단가입찰제도를 실시

- 신속히 자료입수를 통한 이용자와의 시간적인 Gap을 해결
- 공개입찰을 통한 저렴한 금액 입찰 체결, 동일한 예산으로 많은 장서 구입 가능
- 책 선정시 신속한 처리가 가능

#### ② 정리업무

체계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일부의 도서관에는 도서관 정리(목록)부서 사서 이외에 근로 장학생 및 공익근무요원, 아르바이트 등 보조작업을 하는 많은 인력의 확보로 사서의 품질 높은 목록작업과 동시에 교열작업 등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완벽한 Marc Data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도서관의 기본데이터(MARC)를 만드는 정리(목록)부서에서는 컴퓨터와 분담목록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컴퓨터를 사용하기 전보다 목록사서 부서인원이 많이 줄었다. 통합 Database가 확대됨으로서 Original Cataloging이 줄어들고, Networking을 통하여, 데이터를 Down-load 및 Up-load하는 일이 주 업무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리(목록)부서의 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Down-load 한 파일을 그대로 자관의 DB에 Up-load 하는 것이 아니라 자관의 목록 규칙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소장되는 것이다. 게다가 감응테이프, 레이블, 키퍼 등 장비작업은 기본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는 과정이기에 부족한 인력으로 많은 대학 도서관 사서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업무의 처리 내용과 처리방법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목록에 포함될 서지사항의 내용도 달라지고 있고 통합 Database의 사용, 기기 및 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서의 반복적인 업무를 사서직 이외의 타직종(보조인력자원)에게 담당하게끔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부의 대학 도서관에서는 장서의 구입과 동시에 Marc-Data까지 구입 즉 아웃소싱하고 있는 대학의 도서관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정리(목록)부서의 업무가증은 계속되고 있기에 전문적인 사서직의 확충이 힘들다 하여도 보조인력자원의 정책적인 지원이라도 간절한 상황이다.

### ③ 전산업무

도서관 자동화가 시작된 시점에서부터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비사서직 비율의 증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도서관 업무의 변화, 즉 업무의 아웃소싱 문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하는 시점에서 턱없이 부족한 전문직 사서의 수와 사서를 보조해주는 보조인력(근로장학생, 공익근무요원 등)의 부족이 가져온 결과인 셈이다.

참고로 도서관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킬 정도의 인원보충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소수의 비정규직 직원을 유동인력으로 활용하고는 있다. 하지만 이들의 보수는 아르바이트 정도의 수준이기에 지원하는 수도 적고 이들 스스로가 직원이라는 사명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서직이 바라볼 때에도 비정규직이며 보조인력인 이들의 보수가 대폭 상향되지 않는다면 유동적인, 잠시 머물렀다 나가는 정도로만 즉 책임감 있는 직원으로 일 하길 바란다는 점은 사실상 힘든 실정이다.

## 2.3 정보화 역할 확대

정보화 사회의 사서의 역할은 급변하는 주변환경 만큼이나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기본적인 역할은 교육적인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열람실에 부속된 보잘 것 없는 책 창고가 아니라 교육의 모태가 되는 활동적인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도서관은 학생들에게 지적양식을 제공하고 교수진의 연구를 뒷받

침하여야 하며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지적, 문화적 도서관의 행사 및 서비스에 참여할 수 밖에 없도록 이끌어야 한다.

다음으로 역할 확대 측면에서 볼 때 도서관 행정에 필요한 기초적인 법규의 이해와 함께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처럼 정의되는 전문가란 어떠한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그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람을 나타낸다.

이용자들이 정보 접근시 문제가 되는 점을 다양한 각도로 사서에게 질의 해 오기 때문에 국내·외 학술정보 분야나 전자저널 및 E-Book 등 다양한 매체의 이용법에 관한 이용자교육 자료를 만들고 익히며 질의응답 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배양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업무처리의 단순화, 표준화 등의 방법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전문직으로서의 사서가 다분야의 전문가, 즉 Multi-Player가 되어야만 살아 남을 수 있고, 도서관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역할과 더불어 이용자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도서관을 최고의 상품으로 탈바꿈시켜 판매한다는 입장으로 각종 마케팅 기법의 도입과 이용자와의 지속적인 피드백(Feed-Back)을 통하여, 문제점의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대학의 심장으로서 다시 한 번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 2.4. 사서직의 미래 전략

사서직의 전문성 문제는 문헌정보학과와 도서관계가 오랜 시간에 걸쳐 고민해 온 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동안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기 위해 참고 자료를 조사하여 보니 1980년대 이후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문직으로 갖추어야 할 지식을 얻기 위한 제도적 문제는 많이 논의되고 있다. 지금의 문헌정보학의 교과과정은 학부제로 개편됨에 따라 교과목, 학점 등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 2.4.1 사서의 전문성 확보

사서의 전문성 확보문제가 거론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문직이란



특정분야의 학문과 일을 깊이 연구하여 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즉, 전문가들의 職을 의미한다.

예전의 사서들은 이용자들이 사달라는 책이나 사 주고, 빌려달라는 책이나 빌려 주면서 사서직이 전문직이라는 언어도단의 주장을 해왔다. 즉, 스스로가 전문직이 고자 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사서들이 전유물과 같이 써먹던 분류·편목도 더 이상 사서들의 전유물일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른 일부의 도서관도 있다. 전문적 사서로서의 교육을 받지 못한 기타 사무직도 실무에서 1년 정도의 경험을 쌓으면 분류·편목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자매체의 출현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양서의 분류·편목에는 *Bibliofile*을 사용하는 대학이 많은 것만 보아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처하는 사서들의 자세는 조금도 놀라거나 변화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사서의 전문성 확보나 정보전문가로서의 위상제고는 사서직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어느 제 3자가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현재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은 사서나 정보전문가 그 자체의 존재 의의를 상실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서직이 과연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가. 또 사회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가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전문직이라 함은 첫째로 전문지식과 특수기술을 필요로 한다. 둘째로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은 비전문적인 일반사무직과 달리 전문지식이나 특수기술을 위한 교육,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로 사회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사회 봉사직이어야 한다. 이점은 사서직이 사회의 각 계층에서 인정받고 있는 듯 하다.

다만 선진국 대열에 있는 외국의 경우보다 미흡한 점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점은 다음과 같은 점이다. 미국의 경우는 대학원 석사학위가 전문사서의 최초 학위이며 영국의 경우 교육연한이나 졸업과 상관없이 영국 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엄격한 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증이 부여되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4년의 학부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부분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뛰어들기 때문에 사서직 스스로가 어느정도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고 인정하고 자기안주하거나 도퇴되는 사서가 아닌 지속적으로 노력, 발전해야 하는 것이다.

사서직의 지식 습득은 대학교육 과정에서의 정규교육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 즉 도서관에서의 자질개발 프로그램 교육, 정부·협회·학회의 지원과 노력을 통한 제도적인 교육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각 기관에서는 모든 사서직에게 교육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시간을 늘이고 교육기관을 확대하고 주제별, 관종별, 직급별 등의 세분화 된 교육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정신적, 기술적인 훈련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도서관협회가 도서관계 전문직 단체로 우리 사회에 대하여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도서관 발전, 사서직 권위 신장을 위한 활동, 도서관 정책 기초자료 발간과 보급, 사서직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세미나 강좌를 열어 주요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서관 현장과 학계의 의견수렴을 하는 등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이끌어내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와 더불어 '전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국·공립대학 도서관협의회'도 매년 학술세미나와 Workshop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공공도서관 협의회에서도 도서관 현장의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협의회 등이 있으며 우리사회 도서관분야에 관련된 사안들을 끊임 없이 논의하고 토론하는 등 사회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아 전문직으로 역할과 사명을 다 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 2.4.2 주제전문사서

현대의 사회가 전문화되고 세분화 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 시켜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많은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이용자가 만족할 만한 정보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사서도 그만큼의 정보제공을 위해 전문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사서가 모든 분야의 지식에 대해 전문적일 수 없기 때문에 주제전문사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사서직이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위해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임을 인식하고, 각 주제별 전문화된 교육을 통하여 주제전문사서화가 필수적인 것이다.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을 살펴보면 주제전문사서(Subject Specialist)는 주제분야에서 고도의 지식을 소유하고 관련 주제영역의 자료를 선정, 평가하는 업무를 담

당하고 아울러 정보서비스와 서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도서관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그의 주제분야에 속한 도서관 자료의 이용을 최대한으로 확대시킬 책임이 있는 주제전문사서는 다양한 의무를 갖게 된다. 주제전문사서는 정상적으로 최소한 한 주제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기술계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에 대한 석사과정 이상을 이수한 자라야 한다. 대학원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주제분야에 대한 석사학위를 가진 사서로서, 의사전달능력을 갖고 있고, 대학의 학과에서 진행되는 연구와 교수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이다. 또한 그는 자료선정과 장서개발의 책임을 지고, 정보서비스, 서지통정, 도서관 자료의 이용교육을 담당하며, 최신 정보의 선택적 배포서비스를 발전시키고 문제상담 해결자로서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듯 주제전문사서의 역할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주제전문사서가 필요하고 주제별 자료실을 만들어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 역할에 대해 정리하여 보면 :

- a. 주제별 문헌에 대한 서비스와 안내
- b. 주제별 자료실에서 이용자요청사항 해결, 주제관련 질의 응답
- c. 이용자별 수준에 맞는 이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 d. 도서관과 이용자교육 담당 : 주제별 주제 강사 역할
- e. 이용자와의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유지와 증진
- f. 정보제공, 간략한 형태의 정보서비스
- g.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문헌 조사
- h. 신착자료목록의 작성 및 신간 책자에 대한 정보 안내
- i. 외부에서 발간되는 최신정보주지서비스 활용 선택적 배포
- j. 정기적인 자료와 정보를 모아 도서관 발전의 연구 Project에 참여(도서관의 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
- k. 주제전문사서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최종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 2.4.3 사서의 서비스의 방향

- ① 책을 가지고 봉사할 것이 아니라 정보를 가지고 봉사해야 하며 활자화 된

정보들이 아닌 전자화 된 정보매체로 변화되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서지적 정보 제공이 아니라 정보 접근을 위한 루트(Root) 제공과 정보 그 자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보중개자로서의 역할이다.

② 정보화 사회에서는 사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보수집과 축적 및 제공의 최신성, 신속성, 대량성, 효율성, 정확성등을 기하는 방법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즉 정보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③ 정보혜택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도서관 서비스 대상은 특정 이용자 집단에게 정보가 과다 집중되고, 그 외의 이용자들에게는 서비스 기회조차도 주지 못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찾아오는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사서 스스로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④ 새로운 정보기기들을 다루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정보화 시대의 도서관은 정보의 신속 제공요구에 따라 전자매체 뿐만 아니라 모든 미디어 관련 정보기기들을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보기술자로서의 역할인 것이다.

⑤ 정보교육자로서의 역할이다. 사서는 소속된 도서관이 봉사대상으로 하는 이용자들의 정보탐색과 획득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의미의 교육자 즉 이용자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⑥ 사서가 멀티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사서로서의 업무 이외에도, 행정업무 및 전산업무 능력과 외국어 능력의 배양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정보전문가로서의 능력 함양이다.

#### 2.4.4 발전하는 사서직

단순히 책이나 빌려주고 장서나 지키는 사무원이 아니라 풍부한 지식과 상식, 주제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외국어 능력을 겸비한 정보검색 전문가로 태동하여야 하고, 정보검색자에서 멈추지 않고 정보의 홍수속에서 유용한 정보와 그렇지 못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중개자, 나아가 주제전문가, 교육전문가로서의 역할까지도 사서의 몫으로 자리잡고 있다.

도서관 사서 스스로가 연구하고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로 사서는 출판정보에 대해 민감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사서는 출판사나 2차, 3차 자료를 통하여 정보를 획득하기 보다는 이용자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식으로 정보를 얻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서는 늘 새로운 정보에 대해 경로를 개발하여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용자에 대한 정보서비스가 가능한 것이다. 또한 전자복합미디어 정보의 수집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로 작년부터 Issue화 된 저작권 관련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배양해야 한다. 저작권 소유자들은 수많은 이용자와 직접 거래하기 위한 어떠한 기구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격일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저작권 소유자들은 사서를 가장 믿을 수 있는 대리인 역할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셋째 노력해야 할 부분은 전통적인 목록작성 보다 주제분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해야 하는데 이용자들의 정보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2차정보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하며 인용문 분석, 색인어 분석을 통하여 주제집단을 분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주제전문사서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넷째로는 Inter-net을 이용한 정보검색을 비롯하여 컴퓨터 활용에 대한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안되며, 이를 위해서는 워드나 엑셀 문서의 작성 등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능력에서 더 나아가 정보검색능력과 정보처리기술 뿐만 아니라, 도서관 홈페이지의 제작 및 수정, 변환 능력과, 서버구축 능력까지도 구비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시스템관리자 정도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각종 인쇄출판물이나 전자저널 등 많은 외국 학술잡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언어가 영어이고, Inter-net 혹은 Data-Base에서 세계의 공통어로 자리잡고 있는 외국어도 영어임을 인식하고 실력을 배양해야 하며 영어 이외에 일본어, 중국어 등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외국어 실력도 두루 겸비해야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사서직 발전을 위해 제공되어야 할 다양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립대학에서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정보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 훈련도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고 조사되고 있는 반면 국·공립대학에서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이다. 즉, 교육의 양적, 질적 확대가 필요하다.

참고로 계명대, 동국대, 숭실대 등은 직원들에게 많은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 참고할 만한 사항은 숭실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업에 적용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외 프로젝트 공모를 하였는데 도서관에서 4명의 직원이 “선진 외국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시스템 운영 실태 파악”이라는 제목으로 응모하여 북미지역 3개교(워싱턴대, 시애틀 퍼시픽대, 빅토리아대)와 일본 동경대를 연수하였다고 한다.

### Ⅲ. 결 론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위해 지식기반의 경제체제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국가의 장래는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육을 통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격자를 길러내는 것이고 또 그러한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이 대학이다. 그리고 대학의 중심에 도서관이 있기에 그 역할의 중요성은 누구나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다.

즉 도서관의 목표는 근본적으로 국가적, 사회적인 발전에 있기에 도서관과 국가, 사회에 대한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서직인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 바로 도서관의 사회적 배경이다.

오늘날 국가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적인 많은 변화를 거두고 있지만 대학도서관과 같은 사회적 기관의 변화 역시 불가결한 것임을 인식하고 국가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로 되고 있음과 동시에,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대학도서관 환경의 변화와 사서들에게 발상의 전환을 필요한 시점이다.

다양한 정보매체의 기술 발달은 도서관 운영의 효율화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대학도서관의 확립, 사서직의 발전

을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도서관과 전문직 사서의 역할은 단순한 형태의 정보와 문헌들을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첨단 정보매체와 기술을 이용하여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센터와 지식의 전문가로 변화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결국 대학도서관의 구성요소이며 Service를 직접 수행하는 전문직으로서의 대학도서관 사서는 고도의 전문화된 지식과 실습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며, 발전을 위해 전진하는 사서의 모습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이 아무리 좋은 장서와 설비를 갖추고 있더라도 이용자가 효과적으로 자료를 활용할 줄 모른다면 그 도서관은 기능을 다 하지 못한 도서관이고, 생명이 없는 도서관인 셈이다. 바람직한 도서관은 물론 예산이 넉넉하여 좋은 시설과 풍부한 자료를 구입 할 수 있는 기관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능한 사서, 즉 비록 빈약한 예산하에서도 구입해 놓은 모든 자료들은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전문사서가 갖추어진 모습이 가장 바람직한 도서관의 모습이며 사서의 모습인 것이다. 즉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이 통제할 수 있는 확실한 정보기술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용자에게 봉사한다면 미래의 사서직 / 정보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용근. 한국 사서직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제34권 2002
- 이용훈. 사서의 전문성 강화 방안 「도서관」 제57권 1호, 2002년 봄호
- 이제환. 전문직 이론을 통해 본 사서직의 전문성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7권 2호
- 손정표. 21세기 대학도서관과 사서의 전문성에 관한 고찰. 『도서관문화』 제37권 5호. 1996
- 박준식. 정보환경의 변화와 사서의 역할 변용.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1권 4호. 2000
- 최석두. 미래사서의 역할 『도서관문화』 제34권 5호. 1993
- 백진경. 사서의 역량에 대한 대학도서관사서의 중요성 인식도 연구. 2005
- 유경숙. 사서직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논문집 제5호. 1984
- 유찬식. 우리나라 사서직의 역사적 발전.
- 곽동철. 대학도서관 정책 로드맵에 관한 연구. 2006
- 백수진. 정보화시대의 도서관의 주체적인 자리매김. 부산대학교대학원 학기논문집 7집. 1997
- 남태우. 사서의 자격제도 이대로 좋은가. 『도서관문화』 제31권 6호
- 윤지영. 대학도서관 사서의 역할과 주제 전문가. 『도서관학 연구지』 p.83-91
- 정연대.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는 사서의 역할. 『사도협 12회 사서연수회 자료집』 1997
- 조경제. 달라져야 하는 사서의 역할. 『한양대학교 도서관소식지 ‘학술정보관’』 1996
- 윤희윤. 영미 및 한국의 사서직제 분석과 시사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6권 2호 2005
- 안인자. 사서직 업무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6권 1호 p.223-246 2005
- 최성진. 사서직 전문성에 관한 고찰. 『도협월보』 제15권 10호 p.2-8
- 김영귀. 일본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과 사서직의 위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4권 2호 2003



도서관 정보관리 편람, 한국도서관 협회. 1994

대학도서관의 사서직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2권 2호. 1997

도서관 전문성 강화방안, 사서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정책원』 2003. 서울시 도서관연구회 11집. 미래도서관

한국도서관통계연감 2000, 2001, 2002, 2003, 2004

Abott, A. 『Professionalism and the Future of Librarianship』 Library Trends. vol.46 no:3 p.430-443 1988

Goode. W. Jr. 『The librarian : from occupation to profession?』 Library Quarterly. p.306-320

Wilensky, H. 『The professionalization of everyon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0(Septembr): p.137-158 1964

Danner, Richard A. 『Redefining a Profession』 Law Library Journal vol.90 p.315-356 1998

Gorman, Machael. 『Our Enduring Values : Librarianship in the 21st Century』 Chicago:ALA. 2000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Libraries, Museums, Galleries and Archives for All : Cooperating Across the Sectors to Tackle Social Exclusion. London : DCMS. 2001

Apostle, R., B. Raymond 『Librarianship and the Information Paradigm』 Lanham, MA : Scarecrow Press.